광주창업페스티벌 막 올랐다…스타트업 '날갯짓'

오늘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526개사 실증체험 다채
姜시장 "인프라·공간 조성 등 선순환 체계 구축" 강조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4)'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광주시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미래를 이끄는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한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이틀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원, 전필규 삼성전자 부사장, 박진호 구글클라우드 공공부문장, 이준혁 HD현대삼호 상무 등이 참석했다.

지역 최대 규모인 창업페스티벌은 대·중견기업 16개 사, 240개 새싹기업(창업기업), 투자사 270개 사 등이 참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창업기업, 투자사, 대·중견기업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는 창업 성공률이 높은 실증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와 공간은 물론,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창업펀드 등 확실히 창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개막식 이후 '실증빌리지 실증제품 체험전시관'에 참여한 기업 부스 등을 둘러보며 "광주의 창업기업들이 성장의 날개를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 첫날에는 대한민국 대표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 작가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 등 미래 방향'을 발표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 백승욱 의장의 성장 스토리와 인공지능(AI)이 변화시키는 세상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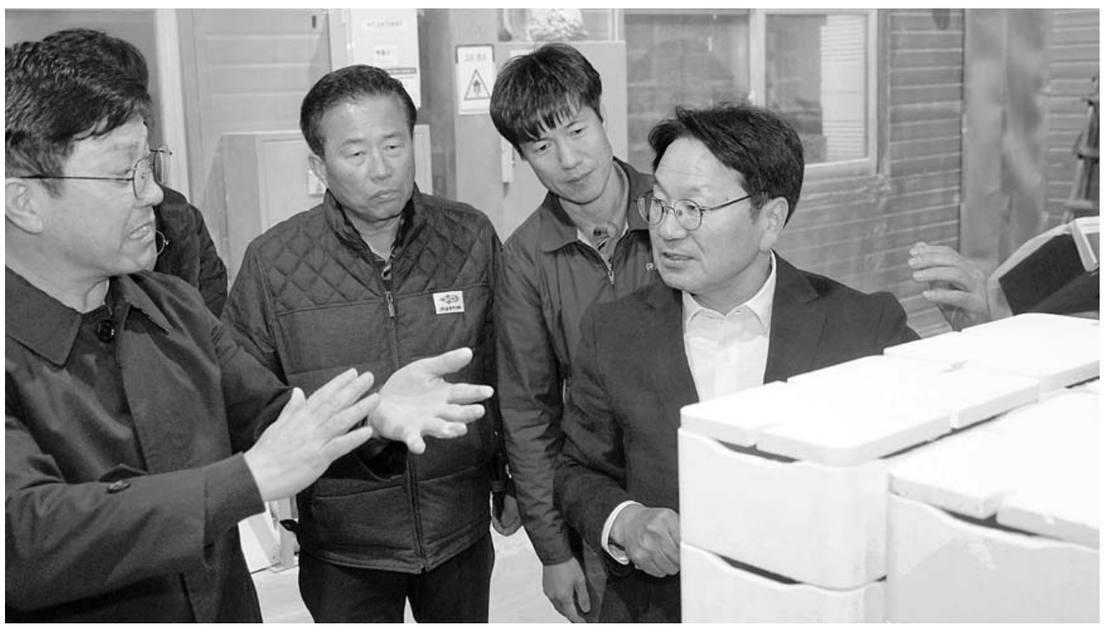
특히 기술혁신 인증제품 및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기관과 투자사 등을 초청해 만남을 주선하는 '실증 테크니컬 투어'도 펼쳐졌다. 실증기업의 후속 투자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IR(기업설명회)과 KDB산업은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광주'를 통해 스타트업 5개 사의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렸다.

이어 29일엔 인공지능융합사업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실증 컨퍼런스'가 열린다.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다양한 사업 연계 기회도 제공된다. 현장 밋업(Meet-up)도 가능해 관심 있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글클라우드, 스타트업아우토반코리아, SK텔레콤, IBK기업은행, Samsung C-Lab, 효성첨단소재, HD현대삼호, 호반, KDB산업은행, 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대기업 16개 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전략(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업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상담과 정보 취득 기회도 제공한다.

창업페스티벌은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방문 가능하며 모든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www.gjsf.kr)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기수희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광산구 진곡산단 ㈜씨아이에스케미칼에서 열린 '제42회 정책소풍'에 참석,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강 시장은 강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강소기업 대표들 "성장사다리 튼튼히"

姜시장, 정책소풍 "기업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인 광주시의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과 정책소풍을 함께했다.

이날 정책소풍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대표 강소기업들의 실질적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기업에서 바라는 사업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다.

기업들은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이 계단을 오르듯 단계별로 구성돼 있어 기업의 도전 의지를 불태운다"며 "지역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성장사다리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수희 기자

'2025 디자인비엔날레' 본격 시동

광주시가 내년 9월 개막 예정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최수신 미국 SCAD(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교수를 최근 위촉하고 총감독과 함께 주제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사 기획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국내 외 주요 디자인 전문가, 학계, 산업계 관계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던 것을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이어받아 추진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공공디자인 부문, 재단은 비엔날레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총력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전국 최다 선정 목표 준비 박차

전남도가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기본 개념이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요 공급망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이 강화된 것이다.

분산에너지가 도입되면 에너지를 인근 수요처에 바로 공급해 소비시킴으로써 송전 비용을 낮추고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와 기업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전력 자급률이 높아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데 유리해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롤 모델이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용역과 산학협업을 통해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해 전남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회 포럼'을 개최해 범정부 공감대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공모에서 전남에 가장 많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선정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분권 실현, 균형발전,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열쇠"라며 "내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1면 '건설 공사비 폭등'서 계속

아울러 적격심사와 간이형종심제 대상 공사 낙찰률 상향도 현실화가 절실하다.

현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중 100억원 미만 낙찰률은 설계 금액 대비 86-87% 수준이다. 100-300억원 공사는 80-81%, 간이형종심제 대상 공사는 80-82% 정도에 낙찰된다.

설계 금액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설계 금액 만큼의 공사비를 들여야 건설사도 일정 수준의 이윤을 내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설계 금액에서 13-20%를 삭감해 낙찰받게 하는 적격심사와 간이형종심제 기준으로는 건설사의 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때문에 건설 현장의 체감 경기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어렵다"며 "현실 단가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사랑愛 서포터즈' 혜택 확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가 5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할인가맹점이 500개소를 돌파하며 서포터즈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할인가맹점은 505개소다.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는 전남지역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접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회사분할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대아건설("분할회사")은 2024년 11월 19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대아건설("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주식회사 대아홀딩스("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할(양도)대상 :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999)
(2) 분할(양도)예정일 : 2025년 1월 1일
(3) 분할(양도)회사 : 주식회사 대아건설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대아홀딩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9호
대표이사 : 고혁주, 김시종
(4) 분할신설(양수)회사 : 주식회사 대아건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9호
대표이사 : 고혁주, 김시종
(5) 의견제출
1) 기간 :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대아빌딩 5층

2024년 11월 29일
주식회사 대아건설
대표이사 고혁주, 김시종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